

예배 및 모임안내

2020-05호 2020년 02월 02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09	02. 16	02. 23
대 표 기 도	이수현 집사	유미영 집사	박재기 집사
성 경 봉 독	이수현 집사	유미영 집사	박재기 집사
헌 금 위 원	유미영 집사	박재기 집사	김효종 집사
안 내 위 원	한명희 집사	한명희 집사	한명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삽시다(창10~30장)
2. 구역예배 - 아라구역, 친교실 정리 후 교육과 지하 방에서 모입니다.
3. 공동의회 - 다음 주일(9일)에는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4. 월례회 - 다음 주일 예배 후 여전도회 월례회 있습니다.
5. 재외국민등록 - 4월 총선을 위한 등록신고를 Hamburg 총영사에 해주세요(2월15일까지)
6. 나눔의 시간 - 여전도회원들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고국 방문	김복자 은퇴권사(4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기도와 나눔에 힘쓰고 각 기관, 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4. 김선태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찬 송 Gemeindelied 34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78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84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요 3 : 1 - 5(신p145).....김민혜 자매
(Johannes 3:1-5)
- 설 교 Predigt 하늘의 지식과 체험!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85장 다같이
- 성찬예식 Abendmahl 막14:22~26, 228장(2,4절) 담임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김효종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5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충성스러운 삶

John Rockefeller의 전기를 보면 그가 가장 신임했던 Archibald라는 사람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그는 본래 Standard Oil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통에 4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 옆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조롱했지만, 그는 작은 이 일이 반드시 회사에 큰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California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간 Archibald는 밤이 늦어서야 방에 들어왔는데 숙박부에 이름만 쓰고 온 것을 생각하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드 오일’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신사가 유심히 그의 행동을 보고 있다가 “왜 그런 문구를 넣지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Archibald는 회장의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회장이 바로 호텔에서 만났던 신사 Rockefeller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록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본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얼마 후 경영 실세로 부상한 아치볼드는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즉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물으십니다. 결국 우리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 /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담임)

* 인간이 종교적으로 확신한 때만큼 완벽하게 악을 행하는 경우는 없다
- Blaise Pascal -